

책자형 선거공보

시흥시의회의원선거 시흥시 나선거구
대야동·매화동·목감동·과림동

가장 합리적인 시흥의 선택



4

시흥 가치의 재평가

김주우

개혁신당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4	개혁신당	김주우	남	1985.06.04 (41세)	주기업사 공동대표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문화기획 연계전공)	전) 엑스엘게임즈 홍보팀 현) 보드리봄 주식회사 대표이사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57,096	57,096	없음	부: 고지거부 모: 고지거부	장남: 없음 장녀: 없음	육군 병장 (만기전역)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32,613	0	0	- 해당없음
후보자	31,809	0	0	
배우자	804	0	0	
직계존속	부: 신고거부, 모: 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4. 소명서

시흥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시흥시민으로 살아오며 느낀 것은 시흥이라는 도시가 큰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소래산과 서해바다, 물왕호수와 은계호수.

넓은 논과 갯골생태공원 같은 자연환경, 그리고 곳곳의 도심들까지.

시흥은 분명 매력적인 자원을 가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 시흥은 가진 잠재력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딘지,

왜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는 늘 부족한지,

왜 계획만 발표되고 변화는 느리게 진행되는지.

시흥시민으로 10년을 살며 저 역시 같은 불편과 답답함을 느껴왔습니다.

정치는 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선거철이면 요란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우리들의 일상 속 불편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불평만 하기보다 직접 움직여 보자.

시민으로서 느꼈던 의문과 불편을 직접 해결해 보자.

거창한 말보다 현실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흥의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시의원.

현실적인 방향으로 시흥의 가치를 높이는 시의원.

기호 4번 김주우가 해보겠습니다.

시흥 가치의 재평가
4 김주우



저는 정치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을 꿈꾸던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를 다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 후 2017년, 시흥으로 이사왔습니다.

어느새 시흥시민이 된 지, 10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웃들을 만났고 헤어졌습니다.
그 분들은 서울로 송도로, 그리고 안산으로 광명으로 저 마다의 이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시흥 안에도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은행, 대야, 장현, 목감, 정왕, 배곧...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각각의 생활권은 예전에도 지금도, 중구난방 흩어져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흥은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각자 따로 움직이는 '각자도생의 도시' 입니다.

시흥에는 아직도 개발 예정인 택지지구가 많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 하중지구 / 거모지구의 개발로 새로운 동네와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서로가 단절된 채로 지금과 같은 각자도생이 반복될 뿐입니다.

한발짝 떨어져서 시흥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시화공단과 오이도. 최근에 불거진 유명도시 이미지의 거북섬까지.
외부에서 보기에 시흥은 수도권 도시가 아닌 **해안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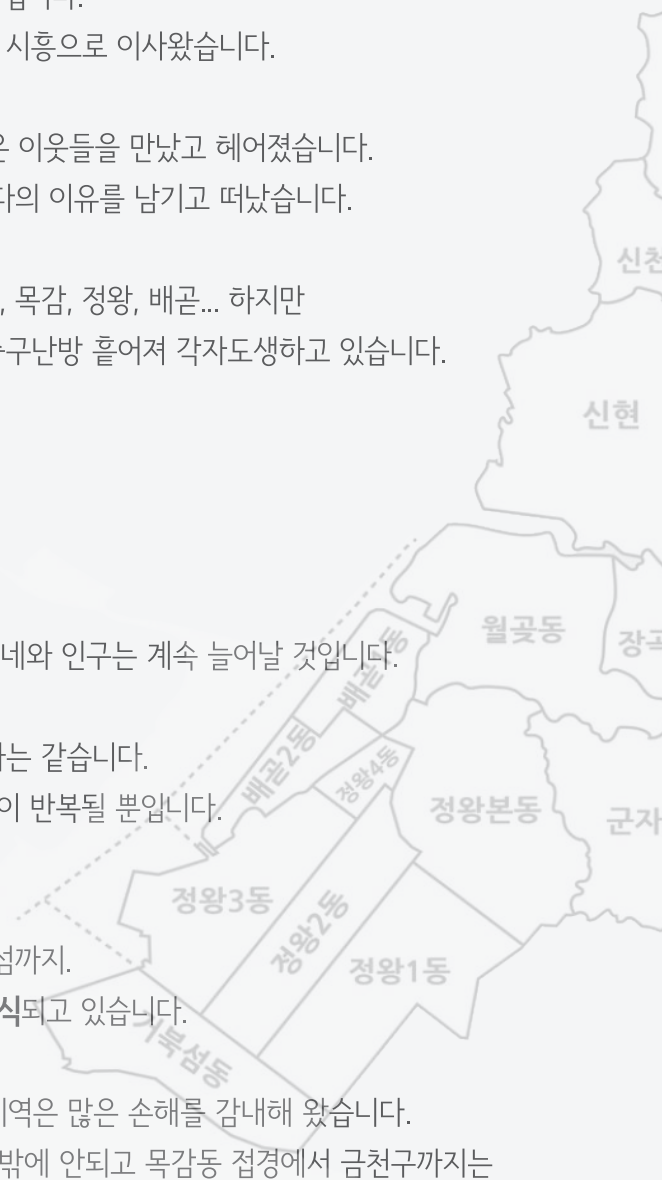
그러한 이미지에 대야, 목감, 과림, 매화 같은 시흥의 동북부 지역은 많은 손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사실 대야동 끝에서 서울 향동까지는 직선거리로 2Km 남짓밖에 안되고 목감동 접경에서 금천구까지는
직선거리로 5km가 채 안됩니다. 시흥 동북부는 수도권 어느 곳들과 비교해도 입지면에서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흥 동북부의 가치는 반드시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그 해법은 분명합니다. **시흥의 행정구 신설**입니다.

면적과 도심별 인접생활권에 따라 시흥 전역을 2~3개의 행정구로 나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밀도있는
도시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행정구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닙니다.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시 산하에 구가 만들어지면 구청 뿐만 아니라 세무서,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필수 행정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구 산하에 여성비전센터, 장애인 노인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기관의 정비 및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교통도 달라집니다.

버스 노선 신설, 도로 정비, 생활권 연결을 **구 단위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구 체제를 2019년 폐지했다가 **5년만에 다시 부활**시킨 선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성, 안산, 안양 같은 인접 도시들도 구 단위로 행정을 운영하며 주민서비스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흥 동북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개발된 은계지구와 대야동 재건축 단지들을 비롯해 목감, 장현 개발로 유입된 30~50대들은 이미 시흥시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신도시로 개발 예정인 과림동과 하중지구가 완공되면 신혼부부들과 아이를 키우는 더 많은 가족들이 대거 유입될 것입니다.

새로운 택지지구 개발과 인구증가를 대비해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시흥 동북구(가칭)”, “청장년 인구가 많은 시흥 동북구(가칭)”로 브랜딩 한다면** 더욱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대야와 목감, 매화와 과림을 투자와 삶의 터전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흥 동북부 지역은 시흥을 넘어 수도권 서남부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조 3항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흥시 인구는 2020년에 이미 50만을 넘겨 꾸준히 증가추세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하고요.

이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구 설치 근거가 충분함에도 아직까지 이런 목소리를 낸 시흥의 정치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던, 시흥 발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정치라면, **저는 정치를 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 시흥이라는 공간을, **<소문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동네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야동 주민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대야동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계획중인 대야역세권 재개발을 비롯해 재건축을 논의중인 모든 단지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방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시흥영업소의 판교방향 정류소의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공영주차장 인근에 3공영주차장을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이용자 뿐 아니라 호수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더욱 쾌적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은계호수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물놀이터**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한여름에도 아이들이 호숫가에서 안전하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가까운 곳에 화장실도 추가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사실상 **방치중인 대교 연수원**이 있습니다.

대교와 협의해 이 건물과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ABC행복타운처럼 주민편의시설이나 청년창업가를 비롯한

건실한 기업들의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야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를 일괄신호로 조정한다면

대각선 방향으로 가야할 때 두 번 건너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매화동 주민분들께 약속합니다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매화뉴타운 재개발** 시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체화하겠습니다.

매화동에 적지 않은 외국인 주민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정왕동과 능곡동에만 있는

시흥시 가족센터의 매화동 분관을 유치해 다양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매화로 가운데 회전로타리부터 이어지는 매화로 도로에 경사구간이 적지 않습니다.

이 **비탈진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면 추운 겨울 많은 눈이 내려도 얼지않는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과림동 주민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과림동에 들어설 광명시흥 신도시와 기존 도심의 연계를 위해

계수로 도로와 과림저수지 주변 정비를 시작하고 공원화 사업을 논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이주지원에 불편함이 없게끔 항상 신경쓰고 있습니다.

목감동 주민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목감동에는 지구를 가로지르는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하늘휴게소에서 탈 수 있는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이 되기도 전에 아래쪽 주차장은 항상 만차입합니다.

판교방면 출입구에는 직원용 주차장이 있지만 이용할 수 없고 일산방향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휴게소 측과 협의해서 **판교 방향 출입구 주차장을 일부라도 개방**하고

일산방향에도 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겠습니다.

물왕호수공원은 초창기에 비해 많은 정비가 이뤄졌지만 즐길거리가 부족합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수영장 같은 시설을 만들어 더욱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야자매트로 깔린 산책로의 정비도 필요하고 산책로에 극히 부족한 화장실 시설 역시 늘려야 합니다.

따오기문화관은 시설을 증축해 지금보다 규모있는 도서관&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추가한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물왕동 식당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화폐가 아닌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역이 된다면

외부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이며

시흥시민들은 시루를 외식비용이 아닌

장을 보거나 학원비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감 원도심의 화두는 재개발입니다.

1구역 2구역 모두 행정적 절차를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세권 인센티브를 주장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만 있고 착공이 미뤄지는 **목감-장현-죽을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목감에서 장현 - 배곧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올라 갑니다.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의 분당, 화성의 동탄, 시흥은??

미래 시흥의 새로운 중심
그 청사진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선택하는 한 번.

4번 김주우를 선택하셔도
여러분의 한 표는 가치있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시흥에 가장 필요한 선택
김주우입니다



시흥 가치의 재평가
4 김주우

· T : 010.2741.9761

· E : kimjoowoo@naver.com



@kimjoowoo